

하나님의 지도만 따라가라

(사도행전 19:17-29)

세상에서 머리를 쓰며 사는 사람을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천 가지의 수를 품고 있어야 험난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피가 많은 사람을 영웅이라 부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간교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잔피를 품은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확실한 수만 붙잡는 것입니다. 불링을 칠 때 초보자는 레인 위에 세워진 열 개의 핀을 모두 바라봅니다. 그러나 불링의 고수는 오직 킹핀 하나만 바라보고 공을 던집니다. 킹핀 하나만 정확하게 쓰러뜨리면 나머지 핀은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머니마다 요긴한 대책을 채워 넣고 필요할 때 꺼내 쓰기를 바라며, 이를 포트폴리오라 부르고 실력이자 능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쌓아 올리는 복잡한 포트폴리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열대우림 지역의 벌목 현장에서는 베어낸 큰 통나무들을 강물에 띄워 운반합니다. 통나무들은 굽이치는 물살을 따라 내려가다가 급격한 소용돌이를 만나면 서로 뒤엉켜 꼼짝 못 하는 정체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수백 개의 뒤엉킨 통나무를 일일이 하나씩 빼내는 방식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능한 벌목공은 복잡하게 얽힌 통나무 더미 가운데서 킹핀 역할을 하는 단 하나의 나무를 찾아 빼냅니다. 그 결정적인 나무 하나를 뽑아내는 순간 뒤엉켜 있던 모든 통나무가 일제히 풀려 다시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인생에 수백 가지의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고 해서 수백 개의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킹핀 하나만 붙잡으면 얽히고설킨 모든 삶의 실타래는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초기의 솔로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단 하나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외교력과 군사력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략결혼으로

천 명의 부인을 두며 천 가지 수를 구비한 천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정치적 포트폴리오에 집중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단 하나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걸인들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망명하여 용병으로 살 때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문란한 죄를 짓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도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인과 간음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조차 주의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애달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평생을 걸어난 분명하고 선명한 인생 지도였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온갖 수단을 늘려가는 잔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세상적인 지혜나 뛰어난 가문이나 능력을 갖춘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복잡한 문제들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도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모세 역시 길이 없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도만 따라 걸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의 선지자들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외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신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도가 그의 영혼 속에 명확히 새겨져 있었기에 그의 심장은 언제나 뜨겁게 고동쳤습니다. 바울의 초기 선교 여행은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에서는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친히 파송하셨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에서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으며, 3차 전도여행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에베소로 돌아왔

습니다. 이전에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에 따라 바울의 행선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주도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히 일치하는 확신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역사로 마술 책들을 불태우는 대변혁이 일어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음에도 바울은 주변의 만류를 받아들이며 몸을 피했습니다.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전진하던 평소의 담대한 모습과는 다른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게다가 로마로 향하겠다는 결심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사역 원칙과도 모순되어 보여 세상의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당시 땅끝으로 여겨지던 서바나, 곧 스페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머무는 종착지가 아니라 땅끝으로 가기 위해 거쳐 가는 경유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땅끝으로 파송하는 사명의 주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안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 학업, 취업, 결혼, 자녀 교육, 노후 건강을 위해 저마다의 지도를 그리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동원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얻고 그것을 은혜라 착각하는 신앙은 가장 초라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벗어난 인간의 질주는 결국 공허한 신기루와 방황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부자를 맹목적으로 좇아가는 인생 역시 결승선 앞에서 낭떠러지와 마주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지도는 십자가였으며 사도들의 지도는 땅끝 증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받은 모든 은혜와 능력을 오직 사명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또한 헛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만 온전히 따르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